



# 새해엔 제주의 잊힌 독립운동가 기억해 주길

항일기념관 '올해의 독립운동가' 제주도보훈청 선정 12명 조명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첫 제주 출신 해녀항일운동 3인 "해녀항일운동 90주년 뜻깊어"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김순중 한백홍



김인송 김순재 강창보 김시범 부병각

제주의 잊힌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열리는 '2022 올해의 독립운동가' 기획전이다.

이달 27일 막이 올라 5월 말까지 조천만세운동의 중심지인 제주시 조천읍에 들어선 제주항일기념관 중앙 로비에 펼쳐지는 이 전시는 제주의 독립운동가를 널리 알리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잇기 위해 기획됐다. 제주도보훈청은 1997년부터 매년 제주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별도 선정해왔다.

올해도 광복회제주도지부와 공동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12명을 선정했다. 1월 해녀항일운동 배후 지도자인 김순중을 시작으로 2월 양기형, 3월 한백홍, 4월 부승림, 5월 김인송, 6월 김순재, 7월 조무빈, 8월 강창보, 9월 김시범, 10월 김항률, 11월 부기준, 12월 부병각에 이른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2022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처음으로 제주 출신이 선정됐다. '1월의 독립운동가'인 구좌면(현 구좌읍) 출생의 부춘화·김옥련·부덕량 선생으로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제주해녀항일운동은 1931~1932년에 걸쳐 해녀를

중심으로 일제와 해녀조합의 수탈과 착취에 항거했던 사건을 말한다. 일제강점기 여성들이 주체가 된 민족운동으로 연인원 1만 7000여 명이 참여한 제주 최대의 항일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에서는 일제의 해녀 착취에 맞섰던 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부춘화 선생에게 2003년 건국포장을, 부덕량 선생에게는 2005년 건국포장을 각각 추서했다. 김옥련 선생에겐 2003년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이동희 제주도보훈청장은 "올해는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제주 출신으로는 최초로 제주해녀항일운동 주도자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선생이 선정된 뜻깊은 해"라며 "더불어 제주도보훈청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도 함께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바람이 만든 제주' 품고 희망의 편지

공공수장고 실감콘텐츠 상영 '희망의 구슬' 포토존도 운영 제주현대미술관은 소장품전



공공수장고 실감콘텐츠 '바람이 만든 제주' 겨울 영상.

지난 한 해 코로나19 속에 제주도립 문화예술공공수장고를 합쳐 8만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불러 모은 제주시 환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 제주현대미술관. 소속된 제주도립미술관에 비해 갑절의 관람객이 몰리는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새해 여러 빛깔 전시와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기꺼이 가까이'는 지난해 제주현대미술관이 새롭게 수집한 소장품을 공개하는 자리다. 2월 20일까지 미술관 기획전실에서 이어지는 이번 소장품전에는 환경과 생태, 사회적 약자를 주목하는 시선 등을 보여주는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등 10여 점이 나왔다. 2007년 9월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은 총 553점에 이른다.

제주현대미술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수장고에서는 실감콘텐츠 '바람이 만든 제주'를 전시하고 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공립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과 활용 지원사업에 따른 신작으로 제주의 사계를 모티브로 박광진, 김성호, 이경재의 작품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영상이다. 이와 함께 지

난해 6월 첫선을 보인 '살아있는 작품전'도 만날 수 있다.

공공수장고 앞 야외에는 대형 스노볼 포토존 '희망의 구슬'이 설치됐다. '희망의 구슬' 포토존은 설 연휴인 2월 6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김시연·박서은 작가의 '마라 73'과 함께 종이로 만든 곰과 사슴, 반짝이는 조명으로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술관은 '희망 우체통 : 미래로 보내는 편지' 이벤트도 준비했다. 2022년에는 희망과 소망을 모두 성취하라는 의미를 담아 총 2022장의 엽서를 비치했고, 주소를 적은 엽서를 스노볼 앞에 마련된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 알 수 없는 마스크 속 표정을 닮은 오늘

양문정의 '불안 주택에...' 등 제주 시인 신작 시집 잇따라

다시 9권의 시집이 도착했다. 거기에 팬데믹 시국을 건너는 우리의 얼굴이 비치고, 불통의 고정관념을 깨려는 여성들이 보인다.

2002년 '심상'으로 등단한 양문정 시인은 두 번째 시집 '불안 주택에 거(居)하다' (황금알, 1만원)를 냈다. 표제작엔 '봄 한철 내내/ 비가 내리고 그치지 않아/ 그 사이에 피어도 주목받지 못하는/ 저 벗꽃처럼/ 나는 당신 가까이 갈 수 없다/ 말소리 뭉개지는/ 알 수 없는 마스크 속의 표정으로는'이란 구절이 있다. 공감 부재의 상황은 비단 감염병 시절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것이다. '저 언덕에 한 치 어긋남 없이 / 금줄을 쳐놓은/ 겨울은/ 네게로 가는 다리를/ 얼려 버렸다'('유체')라며 애써 슬픔을 감추지 않는 시인은 "치욕을 참지 못하는 때가 오

거나/ 나약한 생활이 비굴하다 여겨질 때는/ 애월 구멍리 바닷가에/ 드러누워 너럭바위가 되리라"(소금밭)고 했다.

강은미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손바닥선인장'(한그루, 1만원)에는 제주에서 마주하는 꽃들이 얼굴을 내민다. 무명천 할머니가 떠오르는 "발소리 숨죽여 그 집 앞을 들여다 보니/ 늙은 개 한 마리 턱 괴고 누워/ 가시 든 손바닥선인장 혀로 쓸고 있었네"(손바닥선인장·4-9월 7일) 등 상상 못할 고통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가 있다.

김도경 시인은 '어린이들의 집(集)'(한그루, 1만원)을 묶었다. "절드는 것이 두려워 어른아이가 되기로 했다"는 시인은 그때 비로소 다가온 "순하고 맑은 희망들"을 시편에 담았다.

오광석 시인은 두 번째 시집 '이상한 나라의 셀러리'(견는사람, 1만원)를 출간했다. "가끔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네 며칠을 잠을 안 자기도 하고 불가능한 미션을



완료하기도 하며 위기 상황이 오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네"라는 '셀러리맨'처럼 '판타지와 블랙유머가 기묘하게 섞인 시 세계'를 펼쳐놓았다.

김선 시인의 두 번째 시집 '숨, 길위로 흐르다'(한그루, 1만원)에는 제주의 길에서 보냈던 시간이 머문다. 영화 '폭낭의 아이들' 작업에 참여하며 만났던 풍경을 시로 그렸다.

제주에 살고 있는 김애리사 시인은 두 번째 시집 '치마의 원주율'(견는사람, 1만원)을 펴냈다. '시인의 말'에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준 엄마, 아빠"가 부재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듯, "없음"의 상실감을

안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치열하게 녹아" 있는 시집이다.

이승일 시집 '가족사진'(한그루, 1만 5000원)은 표제작처럼 가족을 향한 애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시들로 채워졌다. 시인은 "꽃 닮은 사람"과 "체온 나눠" 산다고 했다.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가꾸게 되었다"는 강순자 시인은 '눈썹달과 새벽 별'(열림문화, 1만 2000원)을 내놓았다. 제주시시인협회는 2021년도 제주도양성평등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시화전 출판작을 '그 이름에 나는 없어'(비매품)란 제목의 작품집으로 엮었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쪽지

제주가톨릭서예가회 전시

묵향에 사랑과 믿음을 실은 전시가 있다. 제주가톨릭서예가회가 '믿음 안에 시를 찾아서'란 주제로 2월 5~10일 문예회관 2전시실에서 여는 세 번째 회화전이다.

이번 전시엔 김혜정, 김희열, 박민자, 송근실, 장기봉, 조용옥, 좌혜정 서예가가 성경의 한 구절이나 교황 등 성직자의 메시지, 시습 한 시 등을 적은 글씨를 선보인다. 박민자 회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향이 어우러진 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해봄희 여섯 번째 정기전

해봄희 여섯 번째 정기전이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빛숨'이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에는 '약속이나 한 뜻이 오늘도 새날을' 던지는 "같은 듯하나 다른, 멀리 있으나 가까운 빛의 숨발자국"을 포착한 그림들이 나온다. 강미희, 강은미, 고혜령, 김미성, 김미숙, 변영희, 송묘숙, 오진희, 이인옥 회원이 출품했다. 꽃과 정물, 바다가 있는 풍경을 보여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다.

영당이 시킨 겨울~

## 제주 시민만을 위한 노비타비데로 겨울나기

2022. 01. 18 ~ 02. 28

특별 할인혜택

1년치 필터(2개)

무료 설치

에코백 증정

닥터클린 10%할인

3년 무상 AS

강력 방수

01

7만원 할인

BD-AFE50N

#생활 방수 #어린이 기능 #자동노즐 세척

~~299,000원~~ 229,000원

강력 방수

보상판매

02

7만원 할인

BD-CD51N

#방수등급 IPX5 #자동노즐세척 #원적외선 건조

~~309,000원~~ 239,000원

BEST

살균비데 (리모컨형)

03

4만원 할인

BD-H700HO

#매일자동살균! #손 대기 싫은 도기까지 살균! #방수등급 IPX7 #원적외선 건조 #3WAY, 3D노즐 #3분 케어

~~399,000원~~ 359,000원

닥터클린 서비스 할인 접수 방법

노비타 홈페이지(www.novita.co.kr) > 제품 등록 > 쿠폰 발급

※ 홈페이지에서만 혜택 적용 가능 (유선, 방문 신청 시 적용 불가)

주소 : 제주시 연삼로 17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신광로터리 | 노비타 제주점 (구,제민일보 맞은편) | 공항

● 빌스 ● 오양병원 ● 마리나시거리 ● 마리나호텔

신제주로터리